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 유 경** · 안 성 우***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ho Are Deaf and Hard-of-Hear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o, Yookyung* · Ahn, Seungwoo**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ho are deaf and hard-of-hearing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Method]** We extracted data for 278 deaf and hard-of-hearing individuals from the second-wave data of the 2019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extracted date was then analysed using SPSS 26.0. **[Results]** First,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of deaf and hard-of-hearing individuals were found to be above the Panel Survey's median values. Second,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Third,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of deaf and hard-of-hearing individuals and the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 verified on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Since self-efficacy of deaf and hard-of-hearing individuals not only directly affects life satisfaction, but also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oth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uld be enhanced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Deaf and hard-of-hearing,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 본 연구는 2021년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제 1저자,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4단계BK21교육연구팀 박사후과정생
Post-Doc.,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swahn@pusan.ac.kr)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 시기를 지나고 사람들은 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하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망률이나 질병률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전통적인 지표들 외에, 일상생활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장애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삶의 질 측정도구 WHOQOL-100을 개발하였다(WHO, 1996). 이후 전 세계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삶의 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화두가 되고 있다.

연구자들마다 삶의 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이미숙, 조수진, 2011; 전해영, 박재국, 2018), 세계보건기구(1996)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 체계 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삶의 질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이고 전체론적인 개념이며(Moser, Luxenberger, & Freidl, 2017),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 사회, 환경적 맥락 내에서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삶의 질과 함께 행복, 웰빙, 삶의 만족도 등도 존재의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서(Crowe, 2019), 여러 연구들에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김윤희, 방명애, 권보미, 2017; 백수진 등, 2018; 통계청, 2019). 그러나 삶의 질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를 포괄하는 것이고, 삶의 질, 복지, 웰빙의 개념은 객관적 조건을, 주관적 웰빙, 만족도, 행복의 개념은 주관적인 평가를 강조한다(통계청, 2019).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생물학적으로 많은 이득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Crowe, 2019) 끊임없이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해왔다(Bedi & Case, 2014; Crowe, 2019).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등 객관적 요인 외에도 심리적 요인들이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객관적 요인 보다는 심리 주관적 요인이 행복과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yers(2000)에 따르면 성별, 연령, 수입이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정, 관계, 결혼, 가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낫다(Bedi & Case, 2014에서 재인용). 이처럼 인간의 삶의 질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Bandura, 199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전해영과 박재국(2018)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 수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했으며, 백수진 등(2018)은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적 요인으로서 행복감과 장애 인식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신 건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이며, 자아존중감, 심리적 적응, 교육, 직업에서의 성공과 같은 중요한 성과들을 예측하게 해준다(Burger & Samuel, 2017; Lightsey et al., 2013). 그래서 연구자들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게 해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데 반해, 소수이며 일반을 벗어난 범주에 속한 사람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복,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주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손성화, 강영심, 김주연, 2019; McAbee, Drasgow, & Lowrey, 2017).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각장애를 대상으로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김윤희, 방명애, 권보미, 2017; 김태강, 정은희, 2014; 이미숙, 조수진, 2011), 취업한 청각장애인(이준상, 박애선, 2017), 여성 청각장애인(장진석, 2019), 인공와우를 시술한 청각장애인(고혜정, 김경미, 2020)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각장애인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377,094명이며,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 2,618,135명의 14.4%에 해당한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들은 지체장애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2015년 전체 등록 장애인의 10.1%에서 매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 중 청각장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전체 장애인들 중 청각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력 손실은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고혜정, 김경미, 2020; 장진석, 2019; Crowe, 2020; McAbee et al., 2017; Moser et al., 2017). 그래서 지금까지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청각보조기기 사용 전·후의 삶의 질을 비교하거나(Lotfi et al., 2009; Niemensivu et al., 2015), 의사소통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윤희, 방명애, 권보미, 2017; 김태강, 정은희, 2014). 그런데 Moser 등(2017)에 의하면 청력 손실과 그로 인한 핸디캡은 삶의 질, 심리적인 웰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적인 행동 방식이 삶의 질을 예측해주는 변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와우를 이식한 농인들도 자신들의 청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Chapman & Dammeyer, 2017; Crowe, 2019에서 재인용). 즉 청각장애인들은 청

력 손실 그 자체에서 오는 제약이나 불편함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인지적 변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으로 (Lightsey et al., 2013), Steca 등(2009)은 정서와 대인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만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사회 내에서 그들 자신과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 태도,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Crowe, 2020),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Cuevas et al., 2019).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애착, 우연 학습, 문제 해결, 대처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정보 접근 제한성은 모든 생활 영역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Crowe, 2020).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사회적 고립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Wakeland, Rose, & Austen, 2019),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사회 참여로부터 제외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낮은 자기효능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Schnyder et al., 2017). 국내 연구에서도 청각장애 중학생의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이 일반 중학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손현희, 2009).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 수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의빈 등, 2018), 청각장애 대학생이 인지하는 학령기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최성규 등, 2015),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김윤희, 방명애, 권보미, 2017)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청각장애는 장애의 특성 상 의사소통과 관련한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자기효능감이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생활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하면(Crowe, 2020),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의 특성 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대인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 매개효과 검증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가정된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게 해주며(조영일 외, 2015), 종속변수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얻게 해준다(배병렬, 2018).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가 매개역할을 한다면, 청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그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주장애가 청각장애라고 응답한 315명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에 대해 무응답, 응답 거부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278명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8)

Variable	n	%	Variable	n	%		
Gender	Male	139	50	Single	86	30.9	
	Female	139	50	Marital Status			
Age	15~29 years	43	15.5	Married or partner	146	52.5	
	30~39 years	44	15.8	Divorced	25	9.0	
	40~49 years	61	21.9	Widowed	18	6.5	
	50~59 years	70	25.2	Separated	3	1.1	
	Employment Status	60~67 years	60	21.6	Employed	159	57.2
					Unemployed	119	42.8

Educa-tional Level	No schooling	19	6.8	Multiple disability	Yes	10	3.6
	Middle School or less	39	14.0		No	268	96.4
	Middle school	32	11.5	Conver-sation availability	Moderate	239	86.0
	High School	123	44.2				
	Bachelor's degree or higher	65	23.4				
	Severity of disability	Mild	207	74.5	Not at all	22	7.9
Severe		71	25.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성 139명(50.0%), 여성 139명(50.0%)이었으며, 연령은 15~29세가 43명(15.5%), 30~39세가 44명(15.8%), 40~49세가 61명(21.9%), 50~59세가 70명(25.2%), 60~67세가 60명(21.6%)으로 전 연령대가 고르게 표집되었다. 학력은 무학 19명(6.8%), 초등학교 졸업 39명(14.0%), 중학교 졸업 32명(11.5%), 고등학교 졸업 123명(44.2%), 대학교 졸업 이상 65명(23.4%)으로, 전체 대상의 2/3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갖고 있었다. 혼인 상태는 미혼 86명(30.9%), 결혼 또는 동거 146명(52.5%), 이혼 25명(9.0%), 사별 18명(6.5%), 별거 3명(1.1%)으로 결혼 또는 동거로 응답한 사례가 전체의 1/2 이상이였다. 취업 상태는 취업이 159명(57.2%), 미취업이 119명(42.8%)이었다. 장애 정도는 경증 207명(74.5%), 중증 71명(25.5%)이었으며, 전체 사례 중 중복장애가 있는 사례는 10명(3.6%)으로, 연구 대상자 대부분은 청각장애만 갖고 있었다. 대화가능여부에 대한 응답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239명(86.0%), 거의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17명(6.1%), 완전히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22명(7.9%)으로, 대부분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2. 연구 도구

1) 종속 변인: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도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하위 영역 중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한 달 수입(또는 용돈),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답하는 Likert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9개 질문에 대한 평균으로 처리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는 질문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하고 있는 일이 없거나 결혼이나 동거 상태가 아닌 경우 ‘하고 있는 일’ 또는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삶의 만족도 평균을 산출하였다. 삶의 만족도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선행연구들에서는 .842에서 .884(김자영, 한창근, 2016; 이준상, 박애선, 2017; 최성현, 허준수, 201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47이었다.

2) 독립변인: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Schwarzer와 Jerusalem(1992)이 개발하고 Lee, Schwarzer와 Jerusalem(1994)에 의해 한국판으로 타당화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2(최성현, 허준수, 2019)부터 .960(양혜린 등, 201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0이었다.

3) 매개변인: 대인관계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대인관계 관련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척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묻는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①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②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말을 건다, ③ 나는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준다, ④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 해준다, ⑤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싸우지 않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⑥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덩달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다, ⑦ 친구와의 사이

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4점)’ 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6부터 .930(박수경, 이선우, 김소민, 2018; 이의빈 외, 2018; 최성현, 허준수, 2019) 사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6$ 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특성

연구 대상이 된 전체 청각장애인 278명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N=278)

	M	SD	Minimum	Maximum
Self-efficacy	2.74	.55	1.00	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2.69	.62	1.00	4.0
Life satisfaction	3.46	.57	1.43	4.78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4점 척도에서 평균 2.74(SD= .55)였으며, 대인관계는 4점 척도에서 평균 2.69(SD= .62)였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46(SD= .5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수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학적 변인별로 하위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최종 학력 수준에 따른 하위 집단 중 무학(n=19), 초졸(n=39), 중졸(n=32)로 분류된 청각장애인들은 중졸 이하로 재분류하였으며, 혼인 유무에 따른 하위 집단 분류에서는 이혼(n=25), 사별(n=18), 별거(n=3)로 분류된 청각장애인의 수가 많지 않아 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하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subgroups for demographic variables
 (N=278)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M	SD	t/F	M	SD	t/F	M	SD	t/F
Gen der	Male	2.77	.54	1.10	2.68	.60	-.39	3.51	.51	1.59
	Female	2.70	.55		2.71	.63		3.40	.62	
Age	15-29 years ^a	2.89	.43	3.46**	2.86	.45	1.13	3.71	.39	6.98***
	30-39 years ^b	2.92	.45		2.65	.59		3.70	.43	
	40-49 years ^c	2.73	.57		2.61	.66		3.41	.57	
	50-59 years ^d	2.63	.54		2.70	.62		3.32	.63	
	60-67 years ^e	2.62	.60		2.69	.68		3.30	.57	
Educa 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a	2.51	.58	23.61***	2.51	.61	13.26***	3.25	.61	15.54***
	High school ^b	2.73	.50		2.67	.62		3.46	.50	
	Bachelor's degree or higher ^c	3.07	.39		3.00	.49		3.74	.51	
Seve rity	Mild	2.80	.51	3.20**	2.78	.59	4.13***	3.47	.57	.78
	Severe	2.54	.60		2.44	.64		3.41	.58	
Mari tal Stat us	Single ^a	2.77	.55	7.04**	2.63	.62	4.46*	3.60	.47	18.96***
	Married/ Partner ^b	2.80	.48		2.79	.57		3.51	.51	
	Divorced/ Widowed/ Separated ^c	2.47	.66		2.51	.71		3.02	.70	
Emp loym ent	Employed	2.90	.46	6.09***	2.86	.53	5.30***	3.58	.52	4.10***
	Unemployed	2.52	.57		2.48	.67		3.30	.60	

* p< .05, ** p< .01, *** p< .001

먼저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학력, 장애 정도, 혼인 유무,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30~39세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50~59세, 60~67세의 청각장애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연령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3.61$, $p < .01$). 학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3.61$, $p < .001$). 장애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장애 정도가 경증인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중증 청각장애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20$, $p < .01$). 혼인 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미혼이거나 결혼 혹은 동거 중인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한 청각장애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04$, $p < .01$).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취업한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미취업 상태인 청각장애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04$, $p < .01$).

다음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대인관계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장애 정도, 혼인 유무,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대인관계는 대졸 이상인 청각장애인들의 대인관계가 중졸 이하, 고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3.26$, $p < .001$). 장애 정도에 따른 대인관계는 경증 청각장애인들이 중증 청각장애인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13$, $p < .001$). 혼인 유무에 따른 대인관계는 결혼 혹은 동거 중인 청각장애인들이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한 청각장애인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46$, $p < .05$).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한 청각장애인들이 미취업 상태인 청각장애인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30$, $p < .001$).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학력, 혼인 유무,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5~29세, 30~39세의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50~59세, 60~67세의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98$, $p < .001$).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5.54$, $p < .001$). 혼인 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이거나 결혼 혹은 동거 중인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혼인, 별거, 사별을 경험한 청각장애인들보다 높았으며,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8.96$, $p < .001$).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미취업 상태인 청각장애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10$, $p < .001$).

2.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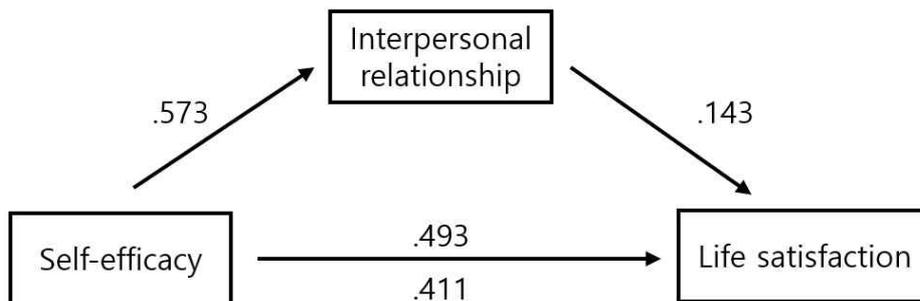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573**	1	
Life satisfaction	.493**	.379**	1

**p< .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 간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Baron과 Kenny의 접근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대인관계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 및 <표 5>와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Table 5] Results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ep	Variable	B	SE	β	R ²	F	Sobel test
1	Independent	Self-efficacy	.513	.055	.493***	.243	88.716***
	→ Dependent	→ Life satisfaction					
2	Independent	Self-efficacy	.648	.056	.573***	.328	134.814***
	→ Mediated	→ Interpersonal relationship					
3	Independent	Self-efficacy	.428	.066	.411***	.257	47.551***
	→ Dependent	→ Life satisfaction					
	Mediat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 Life satisfaction					
	→ Dependent	Life satisfaction	.131	.058	.143*		2.206*

* p< .05, *** p< .001

<그림 1>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 1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88.717, p< .001), 2단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34.814, p< .001).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이 두 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F=45.551, p< .001), 자기효능감의 표준화 계수(β)값이 .493에서 .411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206,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특성 및 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는 모두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비장애인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에 대해 높고 낮음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이미숙과

조수진(2011)의 연구에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 85명은 청인 학생에 비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Crowe(2019)는 농인 377명을 대상으로 직장/학교 생활, 생활 환경, 친구/가족 관계,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통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Crowe(2019)의 연구는 농인 사회(Deaf community)에 속해 있고 미국수어(ASL)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더 행복하다고 응답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며, 이는 성과 위주의 객관적 지표들만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조형정과 윤지영(2016), 최성규 등(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여성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진석(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정여주, 홍성례, 2012; 최성현, 허준수, 2019; Burger & Samuel, 2017; Lightsey et al., 2013). 최성현과 허준수(2019)는 경제활동 참여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ightsey 등(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미래의 삶의 만족도 예측변인이라고 하였다. 또 Burger와 Samuel(2017)은 청년들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아니지만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김윤희, 방명애, 권보미(2017)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며(박진성, 박은희, 2020; 최성현, 허준수, 201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Moser 등(2017)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Moser 등(2017)은 55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6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종속 변인인 삶의 질은 WHOQOL-BREF를 사용하여 신체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 전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삶의 만족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ser 등(2017)에 의하면 청력 손실과 그로 인한 핸디캡은 삶의 질, 심리적인 웰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적인 행동 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적응적인 행동 방식이라는 것은 특징적인 외적/내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인지적 노력과 행동적 노력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Cuevas et al., 2019)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정서적 지원, 문제 해결 지원,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Moser et al., 2017). 즉 가족, 중요한 타자, 동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Moser 등(2017)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대인관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Garberoglio 등(2014)은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Garberoglio 등(2014)은 청각장애 청년들의 자기믿음이 성인의 삶, 고용, 교육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기믿음이란 개인이 미래의 행동에 기여하는 자신의 능력이나 속성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아개념, 자기결정, 자기효능감과 중복되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두 동기에 대한 사회인지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자기믿음의 몇몇 하위 요소들은 청각장애 청년들의 학업적 성과, 독립생활과 같은 삶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청년들의 자기믿음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는 성인기 삶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인들의 자기믿음이 성인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하여 Garberoglio 등(2014)은 청각장애인들이 자기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개인 내적 요인 보다는 주변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최성현과 허준수(2019)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수용 및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지만,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성현과 허준수(2019)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55세부터 65세 사이의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데 반하여 본 연구는 취업과 미취업을 모두 포함하고, 15세부터 67세까지의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모두에 개입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행동뿐 아니라 대처기술과 정서적 결과를 만드는 것이며(Bandura, 1997; Lightsey et al., 2013에서 재인용), 정서와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만족에 매우 중요하다(Steca et al., 2009).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대인관계와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lton et al., 2003; Moser et al., 2017).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다(Cuevas et al., 2019).

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라는 네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 Lightsey 등(2013)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성공 경험이 적고 실패 경험이 많거나,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나 역경을 극복해야 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를 받는 경험이 더 적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청각장애인들이 자기효능감을 얻는 네 가지 정보원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rowe(2020)는 청각장애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부모들의 지지,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자기효능감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Lightsey 등(2013)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부터 전 생애에 걸쳐서 자기효능감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대인관계능력도 더 좋아지고, 삶의 만족도 역시 더 높아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는 모두 자기 보고 방식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자기 보고 방식은 종종 긍정적인 착각 편향(positive illusory bias)을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덜 받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착각 편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Garberoglio et al., 2014).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특성 및 이 변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한 결론은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뿐 아니라 대인관계능력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어 능숙도, 환경 내 언어접근성, 다른 청각장애인들과의 상호작용 기회, 부모의 청각장애 여부, 농문화 참여 등과 같은, 청각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더 필요한 자료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를 농(Deaf)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deaf), 혹은 난청인지, 그리고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청각장애인들의 연령 범위는 15세부터 67세까지로 학령기 후반부터 성인기와 노년기 초반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15세 이상 청각장애인에 대한 총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연령대별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의 메커니즘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령대를 나누어 이 변인들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e, B. R. (2018). *Analyses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with SPSS/ Amos/ LISREL/ SmartPLS*. Seoul: Chungram Publishing.
- [배병렬 (2018). *SPSS/ Amos/ LISREL/ 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박영신, 김의철 역.) 서울: 교육과학사.
- Bedi, S., & Case, G. (2014). Cultural impact on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ho Are Deaf and Hard-of-Hear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97

- adults.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5(11), 1273-1280.
- Burger, K. & Samuel, R. (2017). The role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in young people's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6, 78-90.
- Chang, J. S.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ptance of hearing dis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hearing impaired wome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9(3), 69-88.
- [장진석 (2019). 여성청각장애인의 청각장애수용과 삶의 만족도 관계 연구. **재활과학연구**, 29(3), 69-88.]
- Cho, H. J., & Yoon, J. Y.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Gender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267-290.
- [조형정, 윤지영 (2016).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 역량 간 관계에서 자기관리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267-290.]
- Cho, Y. I., Kim, J. H., Han, W. R., & Jo, Y. J. (2015). Differences and combinations of moderational and mediational effects : Definitions and statistical test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113-1131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개념 정의 및 통계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113-1131.]
- Choi, S. H., & Hur, J. S.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spect, self-efficienc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ability & Employment*, 29(4), 69-95.
- [최성현, 허준수 (2019). 경제활동 참여 고령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 장애수용 및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4), 69-95.]
- Choi, S. K., Lee, J. W., Park, H. R., & Ku, M. S. (2015). The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ge friends and self efficacy of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7(1), 239-261.
- [최성규, 이정우, 박혜림, 구명성 (2015).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학령기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7(1), 239-261.]
- Crowe, T. V.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well-being in a sample of deaf adult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31, 285-298.
- Crowe, T. V. (2020). Factors associated with help seeking and self-efficacy among a sample of deaf adult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https://doi.org/10.1007/s10882-020-09739-9>.
- Cuevas, S., Chen, R. K., Vang, C., & Saladin, S. P. (2019). Determinants of self-efficacy

- among individuals who are hard-of-hearing. *Journal of Rehabilitation, 85*(2), 37-46.
- Dalton, D. S., Cruickshanks, K. J., Klein, B. E. K., Klein, R., Wiley, T. L., & Nondahl, D. M. (2003). The impact on hearing loss on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43*, 661-668.
- Garberoglio, C. L., Schoffstall, S., Cawthon, S., Bond, M., & Ge, J. (2014). The role of self-beliefs in predicting postschool outcomes for deaf young adults.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6*, 667-688.
- Jeon, H. Y., & Park, J. K. (2018). Analysis of LCA and the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objective-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8*(1), 31-56.
[전혜영, 박재국 (2018). 장애인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따른 잠재계층분석과 영향 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28**(1), 31-56.]
- Jung, Y. J., & Hong, S. R. (2012). Mediating effects of school life satisfaction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s on the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239-257.
[정여주, 홍성례 (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 연구- 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39-257.]
- Kim, J. Y., & Han, C. K. (2016). Path analysis between factors e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nd Employment, 26*(3), 5-30.
[김자영, 한창근 (2016). 자산수준과 취업여부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6**(3), 5-30.]
- Kim, T. G., & Jeong, E. H. (2014). A study on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of life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5*(3), 93-110.
[김태강, 정은희. (2014).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 및 청각장애아동과 건청아동 간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3), 93-110.]
- Kim, Y. H., Bang, M. Y., & Kwon, B. M. (2017). Analyses of variables influencing the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8*(3), 179-196.
[김윤희, 방명애, 권보미 (2017).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3), 179-196.]
- Ko, H. J., & Kim, K. M., (2020). The quality of life in deaf people with cochlear implant: Characteristic of disability,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50*, 61-83.
[고혜정, 김경미 (2020). 인공와우 사용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 특성, 의사소통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0**, 61-83.]
- Lee, J. S., & Park, A. S. (2017).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life satisfaction of the employed hearing-impaired-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ho Are Deaf and 199
Hard-of-Hear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self-esteem.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1(1), 97-119.
- [이준상, 박애선 (2017).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재활복지**, 21(1), 97-119.]
- Lee, M. S., & Cho, S. J. (2011).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QOL) in hearing impaired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2), 175-187.
- [이미숙, 조수진 (2011). 청각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5(2), 175-187.]
- Lee, U. B., Shin, S. M., Lee, D. S., Cho, U. H., & Ju, H. J. (2018). The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on self-efficacy of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y: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4), 301-324.
- [이의빈, 신성만, 이다슬, 조의혁, 주현주. (2018).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4), 301-324.]
- Lightsey Jr., O. W., McGhee, R., Ervin, A., Gharghani, G. G., Rarey, E. B., Daigle, R. P., Wright, K. F., Constantin, D., & Powell, K. (2013). Self-efficacy for affect regulation as a predictor of future life satisfaction and moderator of the negative affect - 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Happiness Stud*, 14, 1-18.
- Lofti, Y., Mehrkian, S., Moossavi, A., & Faghih-Zadeh, S. (2009). Quality of life improvement in hearing-impaired elderly people after wearing a hearing aid. *Archives of Iranian Medicine*, 12(4), 365-370.
- Niemensivu, R., Manchaish, V., Roine, R. P., Kentala, E., & Sintonen, H. (2015).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before and after hearing-aid rehabilitation in Fi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ology*, 54, 967-975.
- McAbee, E. R., Drasgow, E., & Lowrey, K. A. (2017). How do deaf adults define quality of life?.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62(4), 333-349.
- Moser, S., Luxenberger, W., & Freidl, W. (2017).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on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with age-related hearing loss. *American Journal of Audiology*, 26, 170-179.
- Paik, S. J., Ahn, S. W., Shin, C. S., & Kang, M. S.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atisfaction of person with hearing impairment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9(2), 109-135.
- [백수진, 안성우, 신창숙, 강명순. (2018). 청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9(2), 109-135.]
- Park, J. S., & Park, E. H. (2020).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ffecting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of pre-service young children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1491-1506.
- [박진성, 박은희 (2020). 예비영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5), 1491-1506.]
- Park, S. K., Lee, S. W., & Kim, S. M. (2018). The Effects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n

maintaining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aily-life satisfaction amo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discrimination by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0*, 123-149.

[박수경, 이선우, 김소민 (2018). 성인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이 긍정적 대인관계를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의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40*, 123-149.]

Schnyder, N., Panczak, R., Groth, N., & Schultze-Lutter, F. (2017). Association between mental health-related stigma and active help-seeking: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0*, 261-268.

Son, H. H. (2009). Comparison of the self-efficacy and job preference of hearing-impaired student and nondisabled stud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aper of master degree.

[손현희 (2009). 청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직업선택도 비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on, S. H., Kang, Y. S., & Kim, J. Y. (2019). The effects of vocational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on their Happines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58*(2), 323-341.

[손성화, 강영심, 김주연.(2019). 청각장애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8*(2), 323-341.]

Statistics Korea (2020).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2019*. Daejeon: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통계청 (2020). *국민 삶의 질 2019*. 대전: 통계개발원.]

Steca, P., Caprara, G., Tramontano, C., Vecchio, G., & Roth, E.(2009). Young adults'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regulatory efficacy beliefs in managing affects and relationships across time and across cultur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 824-861.

Wakeland, E., Rose, J., & Austen, S. (2019). Professionals' experience of deaf offenders with mental health difficulti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64*(1), 137-157.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6). WHOQOL-BREF: Introduction, administration, scoring and generic version of the assessment. Retrieved from http://www.who.int/mental_health/media/en/76.pdf.

Yang, H. L., Ko, Y. J., Park, Y. M., & Lee, H. R. (2017).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and self-efficacy on people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s acceptance of disability: Focusing on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through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Disability and Employment, 27*(3), 89-112.

[양혜린, 고윤정, 박연미, 이혜란 (2017).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7*(3), 89-112.]

<국문 초록>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 유 경 · 안 성 우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방법]**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장어가 청각장애라고 응답한 315명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에 대해 무응답, 응답거부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278명의 자료를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는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청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므로, 청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를 모두 높여야 한다.

주제어 : 청각장애,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장애인고용패널

논문 접수(Received): 2021. 05. 11. / 심사 시작(Examined): 2021. 05. 11. / 게재 확정(Accepted): 2021. 06. 15.